

2008년 하반기 WPO(WorldPublicOpinion.org) · EAI · 경향신문 공동 국제인식조사
EAI 여론브리핑 36호: 미국 불신이 9.11테러 음모론 키워

대표집필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제1차 발표

17개국 여론조사, 미국 불신이 9.11 테러 음모론 키워

(엠바고 GMT 2008. 9. 10 21:01-한국시간 2008. 9. 11 05:00)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9월 11일	9.11 테러의 배후에 대한 국제인식 비교	9 · 11 테러 7주기

조사개요

2008년 두 번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국제여론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상반기에 진행한 국제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조사로서 국제현안 및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소개한다.

2008년 9월 11일
 경향신문사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팀

조사국가 : 18개국 (미국 조사결과 제외)

미주	멕시코, 미국
아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유럽/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요르단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연구팀

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연구진 :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신영환(EAI 외교안보센터), 곽소희(간사)
문의 : 정한울(hwjeong@eai.or.kr 02-2277-1683 내선 102, Fax: 02-2277-1684)

한국조사방법론

조사일시 : 2008.8.28~29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표본수 : 600명
표본추출 : 층화확률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4.0\%$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20.5%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부록1. 조사방법론

부록2. 국제여론조사 연구협력기관

9·11 테러의 책임소재, 세계인의 인식 차 뚜렷

-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음모론 키워

9/11 배후는 누구? 17개국 16,062명 대상 조사

- 9/11 배후: “이슬람극단세력/알카에다” 46%, “모른다” 25%, “미국정부” 15%, “이스라엘” 7%, “기타” 7%順
-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개인일수록 음모론 시각 강해

“9/11 테러 배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격차 커”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9/11테러의 배후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지목한 응답자는 17개국 16,062명의 응답자 중 46%에 불과했다. 그 배후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5%였고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미국정부가 9/11테러의 실질적인 배후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나 된다. 이스라엘이 배후라는 응답이 7%로 뒤를 이었다. 이는 월드퍼브릭오피니언(WPO)이 9/11테러 7주기를 맞이하여 실시한 17개국 국제여론조사 결과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경향신문이 한국 조사를 담당했다. 오사마빈라덴과 알카에다가 9/11테러를 주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치렀지만 9/11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인식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의문은 상당부분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불신할수록 9/11테러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 높아”

“9/11은 알카에다(이슬람극단주의)의 소행”

- 유럽(독일 64%, 프랑스 63%, 영국 57%), 아시아(대만 53%, 한국 51%)에서 높아
- 중동(팔레스타인 42%, 터키 39%, 이집트 16%, 요르단 11%), 중국(32%), 인니(23%)
- 미국의 리더십 평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음모론 강해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나라들에서는 9/11테러를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세력의 소행으로 보는 비율이 높다.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소원한 관계에 있는 나라 국민들일수록 미국정부나 기타 다른 세력을 9/11테러의 실질적인 배후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미국에 대한 태도에 따라 9/11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원조와 에너지 외교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소위 9/11테러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은 찾기 힘들다. 케냐인의 77%와 나이지리아인의 71%가 9/11 배후로 알카에다 등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을 지목했다. 서구 유럽 국가(독일 64%, 프랑스 63%, 영국 57% 등)이나 아시아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대만(53%)과 한국(51%)에서 9/11테러를 알카에다 및 이슬람극단주의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반미감정이 팽배한 중동 국가들에서는 미국정부나 이스라엘 정부 등을 사건의 배후라는 음모론적 해석이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음모론의 공감대가 9/11테러를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보는 일반적 시각이 갖는 공감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배후설이 43%, 미국정부 배후설이 12%로 알카에다를 배후로 지목한 16%를 크게 웃돌았다. 요르단에서도 이스라엘 배후설 31%, 미국정

부 배후설에 17%가 동조함으로써 알카에다 배후설에 동조한 11%보다 많았다. 터키와 팔레스타인에서도 소위 음모론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도네시아나 중국같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음모론적 시각에 대한 동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알카에다와 이슬람극단주의에게 책임을 묻는 의견이 인도네시아 23%, 중국은 32%에 그쳤고 배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57%. 56%에 달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긍정적인 사람은 9/11이 알카에다의 소행이라고 답한 비율이 59%로 전체 평균 46%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미국 리더십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결국 미국에 대한 불신이 9/11 음모설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미국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양 후보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주로 두 지역의 주둔 미군의 철군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미 대선을 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는다. 즉 각 후보가 내놓는 파병 미군에 대한 정책과 그 일정표보다도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불신과 그로부터 파생된 음모론의 뿌리를 해결할 복안을 누가 제시할 수 있을 지가 미 대선을 보는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 대선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한국인, 미국배후설 등 음모론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념적 편차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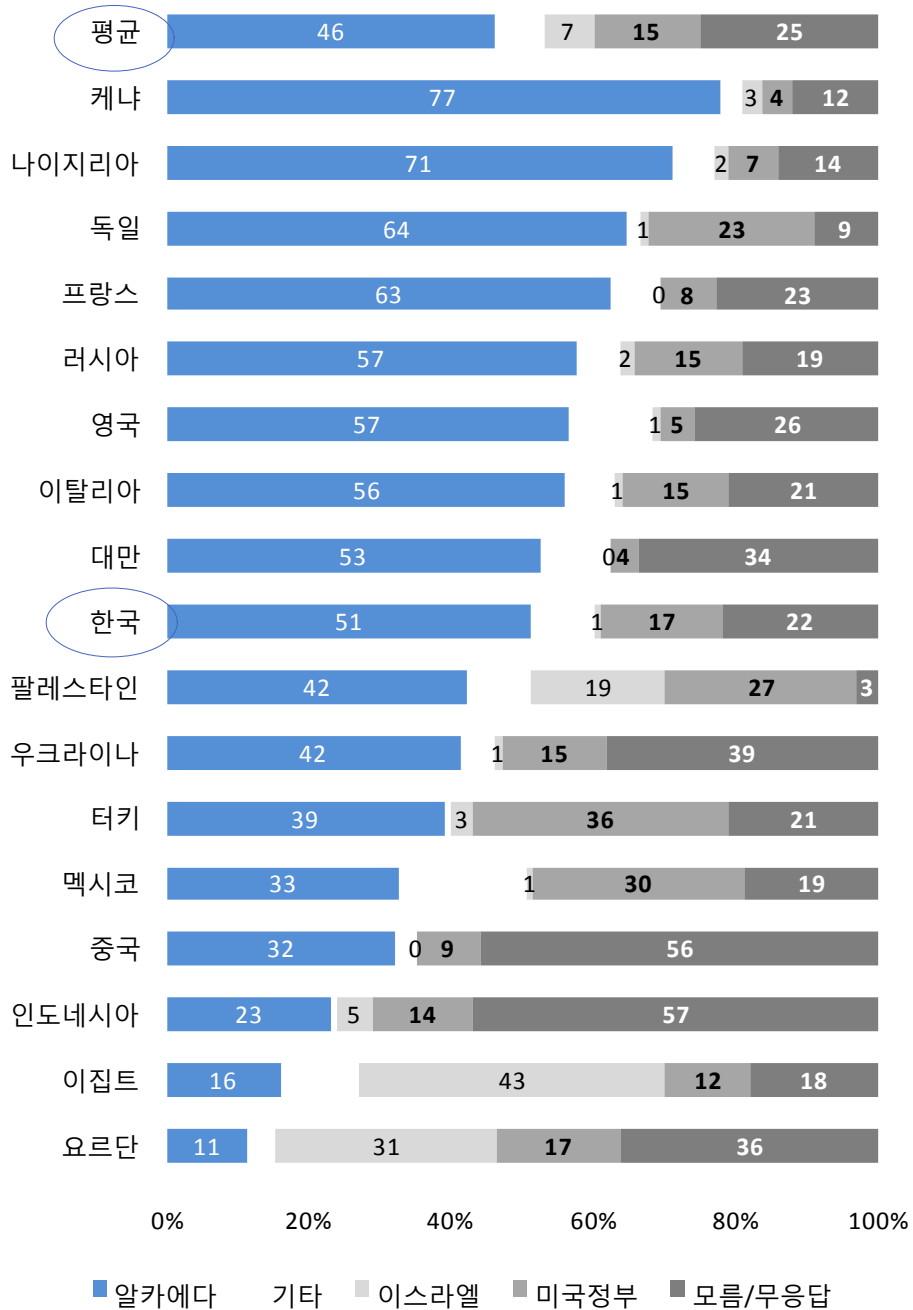
- 9/11 배후: “이슬람극단세력/알카에다” 51%, “모른다” 22%, “미국정부” 17%, “기타” 10%順
-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에 따라 9/11 평가 엇갈려
 - 자주외교론 “알카에다 배후” 36%, “미국 배후” 31%
 - 중도론 “알카에다 배후” 56%, “미국 배후” 13%
 - 동맹강화론 “알카에다 배후” 60%, “미국 배후” 11%

한국에서는 알카에다가 배후라는 인식이 51%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알카에다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모른다는 응답이 22%, 미국정부가 배후라는 응답이 17%, 기타 응답이 1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음모론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도 객관적인 정보보다도 미국에 대한 입장 차이에 의해 9/11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각 입장에 따른 9/11 평가인식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관계를 보다 자주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응답층에서는 알카에다에 책임을 묻는 응답이 36%이다. 반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층에서는 알카에다가 9/11 배후라는 응답이 무려 60%에 달했다. 반대로 자주적 입장을 강조하는 응답층에서는 31%가 미국 배후설에 공감한 반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층에서는 11%에 그쳤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관계 조작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의해 달리 해석된다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늘어나더라도 합리적 토론과 조정의 가능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 상태에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병력의 철군 문제가 부각될 경우 한국사회는 이념갈등의 홍

역을 치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1] 17개국 9/11 테러 배후에 대한 인식 (%)



한미관계인식* 9/11테러의 배후

Q30-US8-S34a. September 11, 2001 Question. Who do you think was behind the 9/11 attacks?

		Al Qaeda/Bin Laden/ Islamic extremists	US govt	Israel	Other Arabs/ Saudis/ Egyptians	Other	DK/NR	Total
바람직한 한미 관계	자주외교	66	56	3	10	13	35	183
		36.1%	30.6%	1.6%	5.5%	7.1%	19.1%	100.0%
	현상유지	117	27	0	14	3	48	209
		56.0%	12.9%	.0%	6.7%	1.4%	23.0%	100.0%
	동맹강화	117	22	1	7	10	39	196
		59.7%	11.2%	.5%	3.6%	5.1%	19.9%	100.0%
	모름/무응답	4	0	0	1	1	8	14
		28.6%	.0%	.0%	7.1%	7.1%	57.1%	100.0%
Total		304	105	4	32	27	130	602
		50.5%	17.4%	.7%	5.3%	4.5%	21.6%	100.0%

[부록1] 방법론 (출처: 월드퍼블릭오피니언 www.WorldPublicOpinion.org)

	Sample Size (unweighted)	MoE (%)	Field dates	Survey methodology	Type of sample
China	1011	3.2	Jul 26 - Aug 2, 2008	Telephone	National ¹
Egypt	600	4.0	Jul 21 - Aug 1, 2008	Face-to-face	Urban ²
France	600	4.1	August 5 - 12, 2008	Telephone	National
Germany	1008	3.1	Jul 15 - Aug 12, 2008	Telephone	National
Great Britain	803	3.5	Jul 31 - Aug 8, 2008	Telephone	National
Indonesia	716	3.7	Jul 26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³
Italy	552	4.3	July 16-30, 2008	Telephone	National
Jordan	583	4.1	August 12-15, 2008	Face-to-face	National
Kenya	1000	3.2	July 17-30, 2008	Face-to-face	National
Mexico	850	3.4	August 9-10, 2008	Telephone	National ⁴
Nigeria	1000	3.2	August 9-18, 2008	Face-to-face	National ⁵
Palestinian territories	638	4.0	August 1-7, 2008	Face-to-face	National ⁶
Russia	3209	3.5	Jul 18-22 and Aug 15-20, 2008	Face-to-Face	National ⁷
South Korea	600	4.1	August 28-29, 2008	Telephone	National
Taiwan	823	4.1	August 22-31, 2008	Telephone	National
Turkey	1023	3.1	Jul 28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Ukraine	1047	3.1	August 9-21, 2008	Face-to-face	National

1 In China, the survey was a probability sampl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ith land-line telephones in the provinces of Anhui, Hebei, Heilongjiang, Hubei, Jiangsu, Shanxi, Shanghai, Sichuan, and Yunnan—representing approximately 60 percent of the mainland Chinese population. The sample was 40 percent rural, 60 percent urban (rural households make up approximately 55 percent of the population).

2 In Egypt, the survey was executed in the urban areas of Cairo, Alexandria, Giza, and Subra. These four urbanized areas represent 75 percent of Egypt's urban population, which is 42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3 In Indonesia,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was conducted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nd covering approximately 87 percent of Indonesia's population.

4 In Mexico, a random telephone sample of adults who had landline telephones was conducted in all 31 states and the Federal District. Telephone penetration in Mexico is 55 percent.

5 In Nigeria, the sample was developed by selecting six states, one per geographic region, based upon their size and representativeness. Within each state, sampling points were selected by means of a multi-stage random sample which disproportionately sampled urban areas. The final sample is 75 percent urban; Nigeria is approximately 50 percent urban.

6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 face-to-face national probability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

7 In Russia, all items were half sampled; each item was answered by at least 800 respondents.

[부록2] WPO 프로젝트 연구협력기관 (RESEARCH PARTNERS)

Country	Research Center	Contact
China	Fudan Media and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FMORC), Fudan University	Dr. Baohua Zhou
Egypt	Attitude Market Research	Mr. MohamedAlGendy +202 22711262
France	Efficienc3	Mr. Samuel Lee +33 3 26 79 03 59
Germany	Ri*Questa GmbH	Dr. Bernhard Rieder +49 (0)7641 934336
Great Britain	Chatham House (RoyalInstituteofInternationalAffairs) / Facts International	Dr. Robin Niblett +44 (0)20 7314 3667
Indonesia	Synovate	Ms. Eva Yusuf (+62-21) 2525 608
Italy	Demoskopea	Ms. ClaraMariotti +39 06 85.37.52.26
Jord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University of Jordan	Dr. Fares Braizat (+962 6) 5300100
Kenya	Research Path Associates Limited	Mr. Stephen Dimolo Ashers +254-20-2734770
Mexico	Reforma	Dr. Alejandro Moreno +52 56 28 72 35
Nigeria	Market Trends Research International	Mr. Michael Umogun + 234-1 791 79 87
Palestinian territories	Palestinian Center for Public Opinion	Dr. Nabil Kukali (+972-2) 2774846
Russia	LevadaCenter	Ms. Ludmila Khakhulina (+7 095) 229-55-44
South Korea	East Asia Institute Media Partner: Kyunghyang Sinmun	Dr. Han Wool Jeong +82 02-2277-1683
Taiwan	TVBS	Mr. Wang Yeh-Ding +886-2-23568961
Turkey	ARI Foundation / Infakto Research Workshop	Mr. Yurter Ozcan +1 (804) 868 0123 Dr. Emre Erdogan +90 212 231 07 08
Ukraine	Kie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Dr. Vladimir Illich Paniotto (+38) 044 537-3376 / (+38) 044 501-7403